

2016. 3. 1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17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2133-5300

해외협력팀장

유희숙

2133-527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담당자

신민경

2133-5264

### 서울시 우수정책, 미행정학회를 통해 세계로 전파 된다

Seoul disseminates best practices for policy adoption to the world at ASPA

- 서울시, 3.20(일)부터 3일간 미행정학회 특별세션 통해 전자정부, 공유경제 등 시 우수정책 대거 발표
- 중요 국제행사에서 시 우수정책 홍보로 서울시 주요정책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 서울시는 3월 18일(금) ~ 22일(화) 5일간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미행정학회에 참석해 미국 럿거스 대학교 등 외국대학의 학자 등과 함께 서울시 우수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행정학회는 미국의 행정학 연구단체로서 학자, 공무원, 기업, 학생 등 전 세계적으로 수 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혁신사례 공유 등을 위한 학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
- 금번 미행정학회에서 서울시는 3.20(일) ~ 22(화) 3일간 운영되는 특

별세션을 통해 외국인 교수 8명, 대학원생 2명과 함께 전자정부, 공유경제 관련 서울시 우수사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예정이다.

- 우선, 3월 20일(일) 개최되는 특별세션 「Seoul, Korea e-Governance : Best Practices for Policy Adoption」에서는 미국 럿거스 대학교 행정대학원 마크 홀저(Marc Holzer) 학장, 아론 마노하란(Aroon P.Manoharan), 알란 샤크(Alan R.Shark) 교수가 서울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 주요 발표내용은 서울의 공간정보시스템, SNS를 통한 시민소통행정(응답소민원처리시스템 등), 전자정부협의체(WeGo)로 구성되며, 서울의 혁신적인 전자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시민중심 행정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한다.
  - 또한 서울시 주도로 '10년 9월 창립한 국제기구인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와 서울시가 어떻게 함께 세계도시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게 된다.
- 또한 다음날인 3월 21일(월) 특별세션 「Seoul Case Study Program(SCSP) Special Session」에서는 시립대학교에서 해외명문대학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례연구프로그램(Seoul Case Study Program)이 소개되고, 그 과정에 참여 했던 조지아 대학 드보라 캐롤(Deborah Carroll) 교수 포함 외국교수 4명 및 학생 2명이 서울시의 모바일투표 평가, 서울의 전자정부 교훈과 사례 등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다.

- 아울러 3월 22일(화) 특별세션 「Promotion Versus Regulation : Contrasting Seoul's and Sanfrancisco's」에서는 서울시 사회혁신 담당관이 참여하여 서울시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사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같은 세션에서 샌프란시스코 대학 연구진이 공유경제의 메카인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소개하게 되어 있어 서울의 공유경제와 샌프란시스코의 우수사례를 비교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자원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 환경오염, 과잉소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최대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조게비아가 '서울을 미래 공유도시'로 평가할 만큼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많은 공유기업과 도시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병한 서울시 국제 협력관은 “미행정학회와 같은 인지도 있는 학술행사에서 서울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서울의 우수정책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해외도시들과 상생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